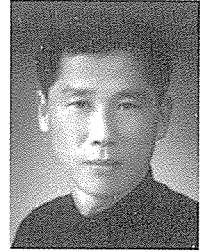




## 육우농가 권익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기혁  
육우분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새로이 육우분과위원장의 책무를 맞게 된 라기혁입니다.

먼저 경륜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심에 불구하고, 본인이 육우분과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맞게 되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젊은 혈기로 우리 육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쌓는데 매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분골쇄신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우리 육우산업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월 타결된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와 더불어 가속화되는 DDA·FTA는 그 산업기반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육우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그간 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불구하고, 육우는 여전히 젓소고기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시장에서 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개방의 가속화 속에서 이를 대비하고 육우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단합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먼저 우리육우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비홍보를 위해 육우자조

금사업 도입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 어떤 품목보다 자조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육우입니다. 품질 좋고 저렴한 우리육우에 대해 정확한 소비자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산업의 미래는 희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육우가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정부활동과 정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우산업의 그늘에 가려 서자 취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활동과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자조금사업이나 대정부활동도 먼저 육우농가를 대표하는 우리 조직이 활성화·체계화되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전국적인 지회결성 확대를 통해 우리 육우농가의 힘을 협회로 결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육우농가의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권익대변과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국 육우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